

올 시즌 세번째 영입 소식... 박세호가 돌아왔다!



새해 들어 올 시즌 두 용병의 영입 소식이 잇달아 들려온 가운데 세번째 영입 소식은 박세호선수의 귀환이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16일 저녁 연변적 선수 박세호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변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세호선수는 일찍 윈 연변부덕팀이 갑급리그 우승 및 슈퍼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의 주역이다. 1991년

생인 박세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세호가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측면 수비수이지만 수요에 따라 중앙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때문에 박세호의 영입이 연변팀의 중후방을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세호는 2002년에 연변체육운동학교에 들어가 전문 훈련을 받았

고 2012년에 연변팀을 대표하여 중국 갑급리그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2018년에 연변부덕팀 윈 주장이 이직한 뒤 주장직을 맡아 같은 해 모든 경기를 뛰었고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2019년에 자유계약 선수로 창주웅사에 입단했고 팀에서 뛰는 동안 85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4 시즌에 청도서해안에 입단했고 19경기에 출전하여 2도움을 기록했다. 이번에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오면서 박세호는 연변 출신 선수로서 고향팀에서 뛰고 싶다는 꿈은 항상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여 윈 연변부덕팀을 떠난 후 중국 슈퍼리그 무대를 누비며 한층 더 발전을 이룬 그는 이번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연변룡정팀에 가입함으로써 마음속의 '꿈'을 계속하여 이어나가려 한다. 더불어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또한 박세호선수의 입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연변룡정의 새로운 휘황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김파기자

1차 전지훈련 결속, 한국 제주도로 2차 전지훈련 시작한 연변팀



연변룡정팀이 한국 제주도로 이동하여 2차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갔다고 연변룡정축구구락부가 지

난 16일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신입 용병 펠리시오 포브스가 팀에

합류해 함께 훈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 운남 옥계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났던 연변룡정팀은 지난 한달간 운남 옥계에서 1단계 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체력 비축을 한 동시에 패스와 드리블, 슈팅 등 기술 훈련을 했다. 구락부측은 "제 1단계 훈련에서 연변팀 선수들은 감독진의 세심한 지도하에 다양한 전술을 익히고 선수들간의 호흡도 점차 원활해졌는바 향후 경기에서의 전술 집행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차 동계 전지훈련에서 연변팀은 훈련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훈련 내용도 더욱 풍부히 할 예정이다. / 김파기자

연변팀, 100 명의 최강 골드팬 모집한다

- 홈경기 전부 무료 관람 혜택
- 매년 한건의 원정경기 무료 관람권 제공
- 수시로 구락부 찾아 팀의 일상 훈련 관람 가능
- 좋아하는 선수의 싸인 유니폼과 축구공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연변룡정축구구락부가 팀의 '12 번째 선수'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에 공식 발표했다. 구락부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광범한 축구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팀의 '12 번째 선수'가 되어줄 골드팬 100명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구락부는 전국 축구계에서의 연변 축구 지명도를 한층 더 올리고 연변축구의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었다고 밝히면서 모집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연변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문화에 대해 중분한 료해가 있어야 하며 축구 경기의 규칙과 축구의 기술, 전술 등에 대해 기본

적인 파악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글쓰기 능력을 갖춰야 하고 축구 행사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일정한 촬영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나이는 20세부터 60세 사이로 정했다. 일단 골드팬으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구락부에서 관련 증서를 발급하고 특정 축구팬 복장을 지급한다. 그리고 골드팬은 한시즌 동안의 모든 홈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뿐더러 원정경기도 한차례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를 구락부측에서 부담한다. 수시로

구락부를 찾아 팀의 일상 훈련을 관람할 수 있고 구락부의 매체중심을 통해 팀에 합리적인 건의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의 싸인 유니폼과 축구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선사된다. 의향이 있는 축구팬들은 룡정시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 가서 현장 신청을 하거나 메일을 통해 신청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메일 : z1931011771@qq.com 757320975@qq.com) "이겨도 저도 내 형제"라는 말처럼 승승장구할 때 같이 웃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면서 연변팀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는 축구팬들은 그야말로 연변팀의 최강 '12 번째 선수'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새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도 축구팬들과 팀이 또 한번 어깨결고 함께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 김가혜기자



1월 18일, 2024년도—2025년도 연변조선족자치주 스피드스케이팅 결승전이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시에서 펼쳐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돈화시체육국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는 500미터와 1,000미터로 나뉘었고 중년 남녀조에 로년 남자 갑조, 을조, 병조와 로년 여자조 등 6개 조별을 설치했다. 이번 결승전은 연변의 스피드스케이팅 애호가들에게 기술을 연마하고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더우기는 빙설운동의 독특한 매력과 무한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 길림일보

연변 출신 국가대표 빙상운동선수들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2월 7일부터 14일까지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열리게 된다. 대회는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규모급 국제 빙설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연변에서 배출한 국가 알파인스키 선수인 류교진, 조신박, 리금양과 국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태지은, 김문정이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 중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류교진선수는 2023/2024 시즌 전국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남자 회전, 대회전, 종합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제 14회 전국동계스포츠대회 알파인스키 오픈 남자회전 우승과 대회전 2위, 종합 2위를 획득했으며 2024/2025 시즌 전국알파인스키 전국선수권대회 대회전 우승, 슈퍼 대회전 2위를 따냈다. 조신박선수는 제 2회 전국청소

년체육대회 알파인스키 남자 일반부 회전과 대회전에서 우승했으며 2023/2024 시즌 전국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남자대회전 준우승, 2024/2025 시즌 전국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대회전 5위를 차지했다. 리금양선수는 길림성 제 19회 체육대회 알파인스키슈퍼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태지은선수는 2024년 전국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팀추월에서 우승했고 제 14회 전국동계운동회 스피드스케이팅 청소년부 여자 매스타트에서 3위, 여자 팀추월에서 우승했다. 김문정선수는 2024년 전국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3,000미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제 14회 전국동계운동회 스피드스케이팅 일반부 여자 팀추월에서 정상에 올랐다. / 종합

방학 기간 어떤 체육숙제가 더 인기 있을까?



중소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아이들의 운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지 각 학교마다 체육숙제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체조를 할 것을 권의했고 동시에 부동한 학년별로 체육 종목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팔단금, 무술체조 등 중국 전통 체육 종목을 숙제로 내준 학교도 있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다른 학과의 과제에 '체육+'를 융합시키기도 했는데 집안일 하기, 광장무 추기, 정월 초하루날 등산을 통해 새해 복 기원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건강한 신체 만들기에서 인격형성, 매일 한시간의 체육수업에서 방학 기간에 체육숙제를 내기까지... 아이들 성장에서의 체육의 다원적 가치는 갈수록 각층의 인정을 받고 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체육숙제는 선의의 강제이다. 그것은 숙제를 지레대로 하여 아이가 방학 동안에 체력을 증강하고 의지를 단련하며 운동에 대한 흥미와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독촉한다. 더불어 아이들이 매일 적어도 한시간씩 실외 단련을 하면 근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달리기와 련습에 동반하면서 함께 몸을 단련하고 가정의 체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모와 자녀간 관계를 밀접히 할 수도 있다. 이대로 된다면 아이의 심신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겨울방학 체육숙제는 아이의 좋은 단련 습관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동적인 '카드 찌기'를 능동적인 '신체단련'으로 바꾸게

할 수 있을까? 이는 학교에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종이에 보여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숙제와 비교해볼 때 체육숙제의 완성성은 학생의 자각과 학부모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것은 체육숙제가 더욱 령활성 있고 매력적인 것을 요구한다. '일률적인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원적이면서도 '체육+'의 선택이 주체를 이루어야 한다. 학교는 필요한 단련을 진행하는 외에 학생들로 하여금 동계아시안게임을 관람하고 동계운동 종목을 료해하면서 빙설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정신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혹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동한 운동 방식, 운동 종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하고 체육류 영화를 관람한 후 감상문을 쓰게 하여 이번 겨울방학에 더욱 풍부한 체육 체험과 체육 요소를 갖추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방학생활이 오색찬란한 도화책이라면 체육단련은 그중 필시 빼놓을 수 없는 한줄기 밝은 색이다. 아이들이 체육 애호를 양성하고 그들이 운동 기능을 장악하도록 돕자면 매일 단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겨울방학은 날씨가 추우므로 점진적인 운동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준비운동과 운동후 스트레칭 및 보온을 잘하여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면서 안전을 최우선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체육숙제가 더욱 많은 웃음을 가져다주고 아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몸을 풀면서 건강을 얻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 / 신화사